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승 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을 중심으로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진

#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이 승 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진

# 인 준 서

김현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의 재학·휴학 중인 여자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설문대상을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0~29세에 해당되며,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하여 32일간 총 227명의 설문지를 제출받았다. 이 중 표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자료 1부를 제외한 226명의 자료를 SPSS 22.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 투입된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은 4학년 기준으로 4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 후 사용하였고, 출생순위는 장녀를 기준으로 3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이성친구 유무는 있다 를 기준으로 1개의 변수로, 전공계열은 문과계열을 기준으로 2개의 변수 더미 처리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9~1.89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은 1.05~1.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더미변수 변환 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가 19.57점, 성차별경험이 46.9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성차별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전혀 없다 16.4%, 없다 24.8%, 보통이다 24.8%, 그렇다 18.1%, 매우 그렇다 15.9%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의 출생순위와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변수는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외동변수, 이성교제유무였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동보다 장녀일수록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델의 설명력은 약 20%, 27%, 28%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은 결혼의향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 전공, 거주형태, 막내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녀변수, 외동변수, 현재 이성친구 유무,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차녀와 외동보다는 장녀일수록, 현재 이성친구가 없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분야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성의 가치관을 사회와 결혼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긍정적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결혼까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제도의 변화를 위하여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과정과 대학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과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냄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II. 선행연구 고찰 .....	8
1. 결혼의향 .....	8
2. 성역할태도 .....	10
3. 성차별경험 .....	12
4. 사회인구학적 요인 .....	15
1) 거주형태 .....	15
2) 출생순위 .....	16
3) 이성교제 유무 .....	17
III. 연구가설 및 모형 .....	19
IV. 연구방법 .....	20
1. 자료 및 표본 .....	20
2. 변수정의 .....	22
1) 종속변수 .....	22
2) 독립변수 .....	22
3) 통제변수 .....	23
3. 자료 분석방법 .....	25

<b>V. 연구결과</b> .....	<b>26</b>
1.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 .....	26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의 차이 .....	28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	30
4. 결혼의향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	32
5. 결혼의향에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미치는 영향 .....	34
<b>VI. 논의 및 제언</b> .....	<b>36</b>
1. 요약 및 논의 .....	36
2. 제언 및 한계점 .....	4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결혼시기 및 필요성 .....	2
<표 2> 한국 미혼인구 비율 .....	3
<표 3>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	12
<표 4>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1
<표 5>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의 전반적 경향 .....	26
<표 6>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	27
<표 7>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	31
<표 8>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33
<표 9>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35

##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19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화하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결혼시기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비율은 결혼해야함이 8.3% 낮아졌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8%, 결혼할 필요 없음이 0.4% 높아졌으며, 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비율은 결혼해야함이 7.9% 낮아졌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6.4%, 결혼할 필요 없음이 1.5% 증가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선택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혼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증가이다.

<표 1> 결혼시기 및 필요성

성별 필요성	남성			여성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결혼해야함	59.7%	45.4%	51.4%	47.6%	40.2%	39.7%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36.4%	48.1%	44.4%	45.5%	50.6%	51.9%
결혼할 필요 없음	3.9%	6.5%	4.3%	6.9%	9.2%	8.4%

자료: 통계청(2019) 결혼시기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초혼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9년 조혼인율<sup>1)</sup>은 5.0건으로 2010년 6.5건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미혼율이 미혼 급증을 먼저 겪었던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30~34세 남성의 미혼율이 56%, 여성 미혼율이 38%로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또한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2010년 남자 31.8세, 여자 28.9세와 비교하면 남자 0.4세, 여자 1.5세로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은 대부분 결혼한 부부에게 발생하기 때문이

1)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

다. 하지만 저출산의 전제조건으로 결혼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김정석, 2006).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율 감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혼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에 대한 연구가 여성에게 더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미혼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한국의 미혼인구 비율의 변화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한국 미혼인구 비율

성별 나이	남성			여성		
	1995년	2010년	2015년	1995년	2010년	2015년
20-24	96.3	98.2	98.8	83.3	93.7	96.8
25-29	64.4	81.8	90.0	29.6	59.1	77.3
30-34	19.4	41.3	55.8	6.7	19.0	37.5
35-39	6.6	18.4	33.0	3.3	7.6	19.2
40-44	2.7	8.5	22.5	1.9	3.6	11.3
45-49	1.3	4.5	13.9	1.0	2.4	6.4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과 남성 모두 10년 사이에 미혼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적령기라고 부르는 25세 ~ 35세 사이의 미혼인구 비율은 남성이 25.6%, 36.4% 증가하고, 여성이 47.7%, 30.8%로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이며, 미혼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조성호, 2018).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인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향이 성별로 차이를 크게 보인다. 2020년 오마이뉴

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전국의 만 18~2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장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있다’ 74.7%, ‘없다’ 25.3%, 여성은 ‘있다’ 50.9%, ‘없다’ 49.1%로 여성의 절반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2020).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현상들을 말하는데, 결혼으로 인한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에 대한 격차,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직종, 경력 년 수,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2018년 월 임금 총액은 남성이 4,144,000원 여성이 2,703,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경력 년 수에서도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남성은 2,747,034명 여성은 824,354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경력 년 수의 차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84만 4천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 9천 명이였다.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가 38.2%, 결혼이 30.7%, 임신·출산이 22.6%, 가족돌봄이 4.4%, 자녀교육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육아, 출산, 결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가족친화제도로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가 모든 직종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남정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해 차별받을수록 여성들은 결혼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과거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인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정일은 여성의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여성이 가정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회였다. 최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여성의 것만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 일에 책임을 여성이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14년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248분, 남성 53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남성과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에게 가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사노동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성별에 대한 역할이 나뉘져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성역할태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기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성역할태도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미 미혼 시기에 형성되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주(1995)등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제도에 전통적 성역할 모델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여학생들은 평등적 성역할 모델을 지향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고, 미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지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결혼 후 여성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취업 상태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은 진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시기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직업세계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삶을 구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대학생은 본인의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시기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충분히 미래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을 중심으로 결혼의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혼인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고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자 대학생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 성역할태도일 때 결혼의향이 낮아지는가?

연구문제 2-2. 여자 대학생의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지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의향

결혼이란 서로 다른 성의 두 사람이 정서적·법적으로 연합해 동거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인간의 생활양식 중 가장 기본적인 행동양식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박주희, 2016).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함에 따라 결혼의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의향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이 가능한데,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의미와 결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접근이 가능하다(홍은영, 2011). 결혼을 의무적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여성의 학력 수준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사회진출이 늘어나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결혼은 의무에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인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통계청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2016년 5.5에서 2018년 5.0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혼인건수는 24,945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0% 감소했지만, 이혼 건수는 9,16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하여 혼인율보다 이혼율의 증가가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성별에 따라 결혼의향에는 차이를 보이려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화를 통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지며 과거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결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아졌다(김혜정,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김정서, 2006).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남성이 58.8%, 여성이 45.4%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8). 여성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고려하게 된 성인들이 과거의 성역할이 강조되는 혼인의 의미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들은 혼인에 대한 회의나 거부를 넘어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현상을 혼인율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박민자, 2004). 2012년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비혼과 만혼에 관한 태도에 대한 답변 중 ‘시댁과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에 찬성하는 답변이 남성 49.4%, 여성 72.2%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에 찬성하는 답변이 남성 58.2%, 여성 78.4%로 성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혼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미혼남녀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규범의 수용도가 낮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더 결혼에 대해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성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남성에 비하여 부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결혼의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의향과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 믿음, 가치관 등을 이야기한다. 성역할태도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성별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융통적인 성역할을 지지하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로 분류된다(윤경자, 1997). 어느 사회, 문화에서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일정정도 나뉘어져 있고 분담에 대한 내용은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는데(백경숙, 김효숙,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고, 성차별적인 모습도 존재하였다.

성역할태도의 인식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20대 미혼남녀의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비하여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었다(홍해숙, 김미예, 최연희, 박완주, 2011). 유계숙, 오아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비하여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와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지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모델에 따른 결혼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평등적 성역할모델을 지향할수록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여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인식 수준이 평등적 성역할 모델을 지지하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김모란, 김현주, 1995). 정선아(2016)의 성인 미혼남녀의 성역할태도와 부모의 부부관계 지각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결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가부장적인 결혼태도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어 결혼보다는 자기개발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지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에 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여성들은 점차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에 진출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사분담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정윤주, 2016). 즉, 성역할태도는 결혼의향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결혼의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성차별경험

성차별은 다른 성별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등을 의미한다(김재은, 김지현, 2016).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여성에게 나타났을 경우 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손지빈, 2019).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통하여 성차별에 대한 관습을 줄이고,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관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김지혜, 2019). OECD, UN 등의 국제기구에 서 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을 국가별 성불평등을 비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 한국의 OECD 26개 국가 중에서 성평등지수가 최하위점수를 기록하였다(김수한, 신동은, 2013).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2019년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The Economist, 2019).

성차별에 관련한 문제 중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다.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성별에 따른 월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표 3>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 만원)

성별 \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남성	336.4	343.3	356.9
여성	204.0	211.2	225.9

자료: 통계청(2019)-성별임금및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월임금총액의 격차는 2016년 약 132.4만원, 2017년 약 132.1만원 2018년 약 131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약 131만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8).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직종

의 특성과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성별의 임금격차가 37%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에 도달한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속 차별적 요인들과 여성이 아직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의 문화요인이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장지연, 오선영, 2017).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8월 부가조사를 통해 연령층별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그 원인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하며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급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후 시장 재진입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조동훈, 2015), 기혼의 여성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는 임금격차는 미혼의 여성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비하여 여성에게 더 가중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의 결혼, 임신과 출산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직장, 직종에서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박종서, 2016). 첫째 자녀 임신 직전까지 취업 중이던 여성이 다음 임신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65.8%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직장 유형별로 경력단절,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이지혜, 2019). 결혼 후 남성보다 여성들이 겪는 비율이 높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같은 현상은 아직 취업 전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가정양립제도가 대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가 직장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는 직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희, 오인하, 2019).

위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성차별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학력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사회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취업 전 상태의 대학생들조차 여자 대학생일 경우 남자 대학생의 비해 일·가정 양립이 유연히 이뤄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여성이 취업 후 결혼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성차별경험과 결혼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여성의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4. 사회인구학적 요인

##### 1) 거주형태

거주형태는 현재 부모 혹은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지, 부모나 가족과의 동거가 아닌 다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거주형태와 결혼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여성이 동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은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희, 2009). 한영선(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거나 친구와 사는 미혼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임훈민, 김중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이른 결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결혼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 및 결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결혼에 대한 압박을 경험할 수 있고, 독립하여 생활할 경우 외로움으로 인한 결혼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박혜민,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거주형태를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출생순위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 행동에 영향을 주고 형제의 성격이나 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김민정, 2003). 형제·자매는 일생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부모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관계이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형제·자매의 출생순위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구성과 결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더 높은 결혼관을 보이고, 형제·자매 구성이 동성일 때 이성일 때보다 높은 결혼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결혼의지에 대한 점수가 맏이나 막내가 중간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훈희, 2011).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전공, 출생순위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건영, 2009).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결혼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나타났다(박선향, 2019).

출생순위와 결혼과 관련한 변수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출생순위에 따라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에 대한 여부는 갑자기 형성되지 않고 성인 초기에 누적되는 가치관으로부터 형성된다(박주희, 2016).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나 태도 또한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대학생의 경우 또래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생순위 또한 결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생순위를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 3) 이성교제 유무

이성교제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남녀가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영, 2010).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청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생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감형성인데 대학생의 친밀감형성은 주로 이성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이성교제는 가족생활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이주연, 하상희,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를 위해 성적위주의 생활과 많은 통제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다양한 경로로 이성과의 만남을 시작하며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이다(전송이, 2010). 요즘 사회에서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청년기 전에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성교제가 처음 이뤄지는 장소는 대학교인 경우가 많다(김미영, 2010).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조승희, 2012). 전문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학생의 80.7%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이보경, 한상찬, 2001).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와 결혼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9.4%가 데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학생의 이성교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재희, 1988). 대학생의 이성관계의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7.7%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조사 대상자의 40.8%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리, 2002).

청년기의 이성교제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청년기의 이성교제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이며, 이성교제의 감소는 결혼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조성호, 2018).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이성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인격형성 등을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원만한 이성 및 대인관계를 배우게 되므로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이주연, 하상희, 2012). 실제로 청년기 대학생의 이성교제 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36.69%가 이성교제 중이며, 74.85%가 연애 후 결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지, 2009).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남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적 인격과 서로 간 인격적 성숙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서 미래의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박은영,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이 이성교제를 통하여 결혼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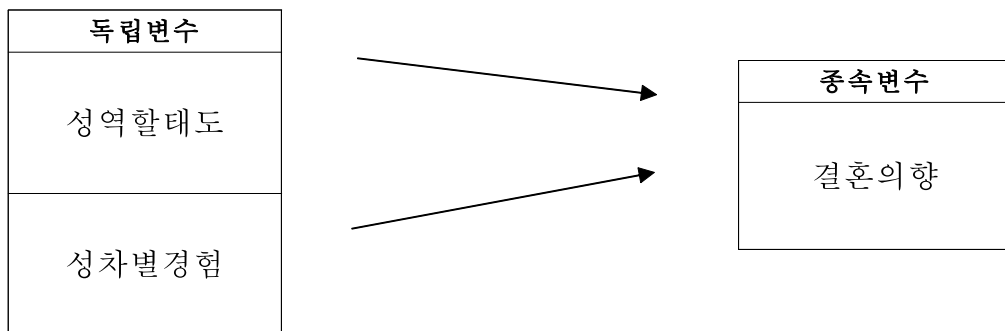
### Ⅲ.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대한 전반적 경향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여자대학생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 성역할태도 일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여자대학생의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질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요인 1	사회인구학적요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li> <li>• 학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형태</li> <li>• 출생순위</li> <li>• 현재 이성교제 유무</li> </ul>

## IV.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대학교의 재학·휴학 중인 여자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설문대상을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0~29세에 해당 된다.

연구의 설문은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 되었으며, 총 227부가 제출되었다. 이 중 표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26부를 선정하여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나이는 평균 23.6세였고, 전공은 의약계열 38.9%, 사회계열 24.3%, 예체능계열 12.4%, 인문계열 11.5%, 자연계열 5.8%, 공학계열 4.4%, 교육계열 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54.9%, 3학년이 12.8%, 2학년이 12.8%, 휴학생이 11.5%, 1학년이 5.3%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는 장녀가 44.2%, 막내가 37.6%, 차녀가 12.8%, 외동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친척포함)이 73.9%, 자취가 19.5%, 기숙사가 6.2%, 하숙이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현재 이성교제 유무는 없다 55.8% 있다 44.2%로 확인되었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평균	%
나이		226	23.56	
전공	인문계열	23		11.5
	사회계열	55		24.3
	교육계열	6		2.7
	공학계열	10		4.4
	자연계열	13		5.8
	의약계열	88		38.9
	예체능계열	28		12.4
학년	1학년	12		5.3
	2학년	29		12.8
	3학년	35		15.5
	4학년	124		54.9
	휴학	26		11.5
출생순위	장녀	100		44.2
	차녀	29		12.8
	막내	85		37.6
	외동	12		5.3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167		73.9
	자취	44		19.5
	하숙	1		0.4
	기숙사	14		6.2
현재 이성교제 유무	있다	100		44.2
	없다	126		55.8

## 2. 변수정의

본 연구의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역할태도, 성차별 경험, 결혼의향이다.

### 1) 종속변수

#### ①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에 관한 질문의 응답으로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로 답변을 구성하였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유무는 각 문항을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 ①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김혜원(1997)이 사용한 성역할태도 척도 21문항 중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적일치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를 가진 주부는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인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등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부록56페이지 참고) 성역할태도 척도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의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한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지 평등적인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뜻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7로 높게 나타났다.

## ② 성차별경험

성차별경험은 김은하(2018)이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경험척도 개발화 및 타당화’에서 명백하고 노골적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을 의미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성희롱을 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 너무 예민한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58페이지 참고) 성차별경험 척도는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차별경험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 ① 사회인구학적요인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요인1 은 총 3문항으로 연령, 전공, 학년 이며 연령과 전공, 학년은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연령은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전공은 조사대

상자가 직접 기입하여 답변하도록 한 후,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2019년 학과(전공)분류 자료집’을 바탕으로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의약계열 ⑦ 예체능계열 로 재분류 하였다.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휴학생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 ② 사회인구학적요인 2

사회인구학적요인 2는 총 3문항으로 선행연구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요소인 출생순위, 거주형태, 현재 이성교제 유무를 조사하였다. 출생순위는 형제·자매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언니 ② 오빠 ③ 여동생 ④ 남동생 ⑤ 외동 으로 답변을 구성한 후, ① 장녀 ② 차녀 ③ 막내 ④ 외동 으로 재분류 하였다. 거주형태에 관한 문항은 가족과 동거하는지에 대한 유무와 대학생의 특성상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부모님과 함께 거주(친척집 포함) ② 자취 ③ 하숙 ④ 기숙사 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현재 이성교제 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① 있다 ② 없다 로 구분하여 답변을 받았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 투입된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은 4학년 기준으로 4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 후 사용하였고, 출생순위는 장녀를 기준으로 3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이성친구 유무는 있다 를 기준으로 1개의 변수로, 전공계열은 문과계열을 기준으로 2개의 변수 더미 처리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9~1.89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은 1.05~1.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더미변수 변환 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의 전반적 경향  
(N=226)

구분	M	SD
성역할태도	19.57	4.69
성차별경험	46.94	12.53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평균은 19.57점으로 성역할태도의 점수 범위가 15점~75점 사이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대체로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 점수의 평균은 46.94점으로 성차별경험의 점수가 14점~70점 사이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성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N=226)

구분		N	%
결혼의향	전혀 없다	37	16.4
	없다	56	24.8
	보통이다	56	24.8
	그렇다	41	18.1
	매우 그렇다	36	15.9
전체	M(SD)	2.92(1.31)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보통이다’, ‘전혀 없다’가 24.8%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18.1%, 없다 16.4%, 매우 그렇다 15.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의 평균이 2.9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1의 전공과 학년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전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과 학년의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전공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F(6, 219)=.64, p=.7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F(4, 221)=1.72, p=.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성차별경험의 차이는  $F(6, 219)=1.10, p=.3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성차별경험의 차이는  $F(4, 221)=.76, p=.5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변수 2의 출생순위, 거주형태,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실시 전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출생순위와 거주형태의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F(3, 222)=.24, p=.8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F(2, 222)=.61, p=.6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 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t(224)=1.15, p=.2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는  $F(3, 222)=2.26, p=.0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는  $F(2, 222)=1.87, p=.1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 유무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는  $t(224)=-.46, p=.6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 후 사후분석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변수 1의 전공과 학년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과 학년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 분석 전 분산의 동질성검사 결과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는  $F(6, 219)=.64, p=.7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는  $F(4, 221)=.35, p=.8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변수 2의 출생순위, 거주형태,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출생순위와 거주형태 분석 전 분산의 동질성검사 결과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생순위와 결혼의향의 차이는  $F(3, 222)=3.50, p=.0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Tukey test 결과 장녀와 외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는  $F(2, 222)=.74, p=.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는  $t(224)=-4.99, p=.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N=226)

구분		결혼의향		Tukey M(SD)
		M(SD)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1	전공	인문계열	3.00(1.44)	
		사회계열	3.05(1.28)	
		교육계열	3.17(1.17)	
		공학계열	2.30(0.82)	
		자연계열	2.77(1.24)	
		의약계열	2.85(1.34)	
		예체능계열	3.07(1.39)	
		F	0.64	
	학년	1학년	2.83(1.11)	
		2학년	3.17(1.23)	
		3학년	2.89(1.35)	
		4학년	2.87(1.34)	
		휴학	3.00(1.36)	
		F	0.35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2	출생 순위	장녀	3.16(1.32)	
		차녀	2.59(1.32)	.57(.27)
		막내	2.88(1.26)	.28(.19)
		외동	2.08(1.16)	1.08(.39)*
		F	3.5*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2	거주 형태	부모님과함께거주(친척집 포함)		2.95(1.32)
		자취		2.91(1.31)
		기숙사		2.53(1.29)
			F	.74
	유무	현재	있다	2.46(1.25)
	교제	없다	3.29(1.25)	
	t		-4.99***	

\*p<.05 \*\*\*p<.001

#### 4. 결혼의향과 관련 변인 간의 관련성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외동더미, 이성친구유무로 성역할태도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고,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며, 외동보다는 장녀일수록, 이성친구가 없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35***	1												
3	.357***	-.244***	1											
4	-.017	.025	.052	1										
5	.073	-.038	-.060	-.091	1									
6	-.013	.139*	-.078	-.101	-.164*	1								
7	.021	-.116	-.006	-.085	-.138*	-.154*	1							
8	-.099	.045	.002	.027	-.068	-.128	-.014	1						
9	-.025	.007	-.153*	-.062	.087	.097	-.051	-.298***	1					
10	-.152*	-.034	-.027	-.056	.027	.008	.100	-.031	-.184**	1				
11	.027	.054	-.042	-.039	-.043	.115	.025	-.164*	.025	.051	1			
12	-.316***	.076	-.031	-.052	-.129	.013	-.042	-.049	-.048	.027	-.079	1		
13	-.099	.078	-.044	-.035	-.192**	-.200**	-.326***	.079	.005	-.035	.020	.087	1	
14	.053	-.075	-.030	.011	.246***	.094	.042	-.124	.082	.011	.025	.024	-.413***	1

\*\*\*p<0.001, \*\*p<0.01, \*p<0.05

1 결혼의향 2 성역할태도 3 성차별경험 4 1학년더미(1학년=1, 그 외=0) 5 2학년더미(2학년=1, 그 외=0) 6 3학년 더미(3학년=1, 그 외=0)

7 휴학생더미(휴학생=1, 그 외=0) 8 차녀더미(차녀=1, 그 외=0) 9 막내더미(막내=1, 그 외=0) 10 외동더미(외동=1, 그 외=0)

11 부모와동거여부(동거=1, 그 외=0) 12 이성친구유무(1=있다, 없다=0) 13 자연과학계열더미(자연과학계열=1, 그 외=0) 14 기타전공더미(기타전공=1, 그 외=0)

## 5.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87 ~ 1.897 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은 없으며,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간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한 VIF 값은 1.054 ~ 1.600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변환 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모델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모델 III에서 관련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첫째, 각 모델별 설명력은 약 20%, 27%, 28%로 나타났으며, 관련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III에서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은 결혼의향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III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이 있다고 나타난 변수는 차녀더미변수( $\beta=-.60, p<.05$ ), 외동더미변수( $\beta=-1.11, p<0.01$ ), 현재 이성친구 유무( $\beta=-.81, p<.001$ ), 성역할태도( $\beta=-.03, p<.05$ ), 성차별경험( $\beta=.03, p<.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녀와 외동일때보다 장녀일 때 결혼의향이 더 높아지며, 이성친구가 없을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더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beta$	$\beta$	$\beta$	
사회인구학적 변수 1	학년 (4학년 기준)	일학년	-.27	-.33	-.30
		이학년	.01	.14	.14
		삼학년	-.03	-.00	.06
		휴학생	-.12	.03	-.01
	전공계열 (문과계열 기준)	자연과학계열	-.15	-.11	-.09
		기타계열	.058	.05	.03
사회인구학적 변수 2	출생순위 (장녀기준)	차녀	-.60*	-.55*	-.52*
		막내	-.33	-.18	-.19
		외동	-1.11**	-.97**	-1.00**
	거주형태	부모와동거	.01	.01	.03
	현재이성친구유무	이성친구가있음	-.81***	-.81***	-.78***
성역할태도		-.05**		-.03*	
성차별경험			.04***	.03***	
Constant(상수)		4.56	1.85	2.57	
R <sup>2</sup>		.20	.27	.28	
$\Delta R^2$		.15	.223	.23	
F		4.42***	6.44***	6.42***	

\*p<.05 \*\*p<.01 \*\*\*p<.001

\*거주형태(부모와동거함이 기준), 현재이성친구유무(이성친구가 있음이 기준)

## VI. 논의 및 제언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자 대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가 19.57점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점수 범위는 15~75점 사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차별경험이 46.94점으로 나타났다. 성차별경험의 점수가 14~70점 사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성차별경험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성차별을 경험해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의향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전혀 없다 16.4%, 없다 24.8%, 보통이다 24.8%, 그렇다 18.1%, 매우 그렇다 15.9%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의 출생순위와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변수는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외동더미

변수, 이성교제유무였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동보다 장녀일수록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델의 설명력은 약 20%, 27%, 28%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은 결혼의향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 전공, 거주형태, 막내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녀변수, 외동변수, 현재 이성친구 유무,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녀와 외동보다는 장녀일수록, 현재 이성친구가 없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결혼의향은 평균 2.92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퍼센트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59.1%, 없는 대상자가 40.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결혼의향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여성의 45.4%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2019년 조혼인율의 수치는 4.7로 역대 가장 낮은 혼인율을 보이며, 계속 감소하는 혼인율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혼의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제도가 아직 사회에 남아있으며,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긍정적인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의향을 가진 대상들이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태도가 평등적 성역할태도일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이동원·김모란·김현주(1995)의 연구와 서지희(200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결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부장적인 결혼태도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어 결혼보다는 자기개발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던 정선아(2016)의 연구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 후 자신의 상황이 불합리해질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등적 성역할태도일수록 결혼 후의 자신의 상황이 불합리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성차별경험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으며, 그에 따른 문제의식 또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과거부터 이어진 성차별적인 행동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현재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을 문제라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뤄지며 변화하는 사회 현상들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거나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녀가 차녀와 외동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생순위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들러의 이론 중 가족구조와 출생순위에서 첫째는 부모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며, 차녀는 독립성이 강하고 외동의 경우 첫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지만 가족의 보호 속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장녀의 경우 부모와 사회의 기대로 인해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결혼의향이 높으며, 차녀와 외동의 경우 장녀에 비하여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당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장녀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민지(2009)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의 의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이성교제의 의미 또한 변화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결혼이 필수로 여겨진 시대에는 이성교제가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성교제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현재 이성교제 대상을 결혼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성교제만 원하는 비혼주의인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의 해석을 토대로 혼인율을 증가시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분위기나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윤경자(1997)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며, 부인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닐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역할태도와 관련한 홍해숙 외 3명(2011)의 연구, 유계숙, 오아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할 때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결혼의향이 높더라도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성과의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여성들은 바람직한 결혼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으며,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결혼의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와 사회분위기가 아직 변화하는 여성들의 가치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결혼의향에 관한 제도에 접근하였다면, 결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고 있고, 성역할태도가 결혼의향부터 결혼만족도까지 전반적인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현시점에서는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성문화, 가족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는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차별이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의 성차별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족과 관련한 교육 또한 가정 내에서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어려우며 이는 결혼 후 올바른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과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속 올바른 성문화와 가족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양과목의 개설 또는 대학 내 강의 등이 이뤄진다면 현재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와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향이라는 변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변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인과관계만 파악했을 뿐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를 분석하여 결혼의향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현재 남자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가 과거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두 성별 모두 대상으로 설정하여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분야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성의 가치관을 사회와 결혼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긍정적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결혼까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적

이고 보수적인 결혼제도의 변화를 위하여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과정과 대학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과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냄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건영(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미경(2007).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과 이해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영(2010). 대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및 가족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2003). 여자 대학생의 형제관계가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순아래 여자 형제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민지(2009). 청년기 대학생의 이성교제 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 김수환, 신동은(2014).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경험. 한국사회학 제 48집 4호. 91-125
-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2011). 한국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63호. 161-185.
- 김은하(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제24권 제4호. 593-614.
- 김재은, 김지현(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7권 제1호. 187-205.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57-70.

- 김혜원(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 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제 11권 제2호. 111-127.
-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미혼남녀 대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제16권 제1호. 109-135.
- 박선향(2019). 남녀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과복지 제21권 제3호. 87-106.
- 박은영(2003).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연인간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중서(2016) 취업여성의 일 · 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년 6월호(통권 제236호). 18-36.
- 박주희(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4호(통권 제142호). 21-35.
- 박혜민(2017).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백경숙, 김효숙(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3호. 205-223.
- 서지희(2009).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손지빈(2019). 20~30대 여성들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계숙, 오아림(2011). 대학생의 구직관련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2호. 145-170.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221-235.
- 이동원, 김모란, 김현주(1995).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한국문화연구원 논집. 66(1-3). 191-212.
- 이보경, 한상찬(2001). 전문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실태조사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제2권 제2호. 241-251.
- 이양희, 오인하(2019). 일·가정양립제도가 대학생의 직장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2호. 77-101.
- 이주연, 하상희(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2,821-2,837.
- 이지혜(2019).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9년 2월 통권 제 268호. 55-72.
- 이훈희(2011). 형제자매 유무 및 관계가 결혼·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훈민, 김중백(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3호. 45-67.
- 장지연, 오선영(2017).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통권 제19호). 167-194.
- 전송이(2010). 여대생의 이성교제 시 성 의사소통 Sexual Communication 유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선아(2016). 성인 미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부모의 부부관계 지각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결혼의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호(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4호. 398-430.
- 조승희(2012). 이성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영선(2015)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015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196-215.
- 홍은영(2011).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홍해숙, 김미예, 최연희, 박완주(2011).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남녀의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권 2호. 152-165.
- 양서원(201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7~2019). 결혼시기 및 필요성
- 통계청(2018) 고용형태별근로조사
- 통계청(2019). 성별임금 및 근로시간
- 통계청(2019). 2019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현황
- 통계청(2019).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통계청(2019). 인구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marriage intention**

Focusing on Gender role attitude and Sex discrimination exper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im, Hyun Jin**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arriage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ir gender role attitude and sex discrimination experience.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marriage inten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or taking time off from the university, we limited the survey subjects to female college students. The age of study subjects is 20~29 years and based on Google form, the questionnaires were submitted by a total of 227 subjects for 32 days from Jan. 18 to Feb. 18, 2020. Among which, except for one copy of the data of a graduate student who is not suitable as a sample the data of 226 sample were analyzed with SPSS 22.0 version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overall gender role attitude,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marriage inten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Secon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fact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w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Thir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marriage inten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fact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w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Fourth, to identify the relevance between marriage intention and related variables in female college students, we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In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which are variables input to correlation analysis, the grades used four variables after dummy-processed, the birth order was dummy-processed with three variables based on the eldest daughter, and major was put into the analysis after two variables dummy processing based on liberal arts standard. Fifth, to identify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marriage intention,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urbin-watson test to examine the fitness of the regression model befo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gression model was appropriate because there was no magnetic correlation. The VIF range is between 1.05 and 1.60,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ulticollinearity. A sociodemographic variable is used for regression analysis after dummy variable conver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overall tendency of gender role attitude,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marriage inten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attitude was 19.57 points,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was 46.94 points, indicating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d a fluid sex role attitude and in general had experienced sexual discrimina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overall tendency over marriage intention was 'I do not have an intention at all' (16.4%), 'I

don't have an intention' (24.8%), 'so-so' (24.8%), 'I have an intention' (18.1%), and 'I have too much intention' (15.9%) and the mean value was 2.92 point. Secon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t appear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ir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difference in marriage inten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female college students,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marriage intention depending on birth order and the present romantic relationship and no difference in residential type and marriage intention. Fourth,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the variables that appeared to be relate to the marriage intention were gender role attitude,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singleton dummy variable, and the present romantic relationship. Fifth,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exual role and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marriage intention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roducing sociopetal variables into control variables, and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each model was about 20%, 27%, and 28%, and that sexual role and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influence similar to marriage intentions. It was found that grade, major, residential types, and youngest dummy variables of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do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but that the second daughter dummy variables, single child dummy variables, the

present romantic relationship, sexual role attitudes,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is means she is an eldest daughter rather than second daughter or only daughter, if she does not have a romantic relationship presently, if she has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or if she has more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likely mar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al and marriage system is not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values of women through suggestions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hat can be the most fundamental to social welfare, so that even if women with equal gender roles have a positive intention of marriage, they need to establish a gender equality marriage system that can negatively affect the process of actual marriage, and for this purpos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gender equality and continuou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family.

<부록>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로,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설문지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대해 사회복지적 실천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철저히 비밀로 보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하여 엄격히 법의 보호를 받는 사항이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 이 승 기

연구자 : 석사과정 김 현 진

E-mail : [ogcl10@naver.com](mailto:ogcl10@naver.com)



다음의 내용은 성역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시요. (각 문항 당 한 곳에 표시해주세요)

1.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어린 자녀를 가진 주부는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인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내 책임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남성은 가정에서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할 수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여성이 잘 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벌면 남편의 자존심은 손상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여성은 자기를 위해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를  
포기해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부서에서 책임자는 남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직장에서 사람을 쓴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쓰는 것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여성은 직업수행능력에서 남성보다 뒤떨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적인 리더십을 수행하는 능력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직장에 나가는 여성은 집에 있는 여성보다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갖기가 힘들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음은 성차별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시요. (각 문항 당 한 곳에 표시해주시요.)

1.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2. 성희롱을 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3. 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피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4.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5. 남자로부터 '여자가 너무 따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6.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7.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8.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9. 남자로부터 '여자는 결혼 잘 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10.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11. 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 쓰니 훨씬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12.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13. 남자로부터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
14.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남편이나 친구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전혀 경험한적 없다 ② 경험한적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했다  
 ⑤ 매우 자주 경험했다